



보도참고자료

보도일시	2009. 3. 19(목) 배포시		
배포일시	2009. 3. 19(목) 14:30	담당부서	예산실 노동환경예산과
담당과장	김완섭(2150-7230)	담당자	장영규 서기관(2150-7231) 김윤희 사무관(2150-7233)

제목: 4.9조원 일자리 대책으로 55만개 새 일자리 창출

◇ 금번 추경의 일자리부문 사업은 일자리 창출, 지키기·나누기, 교육훈련에 역점을 두고 추진

- ① 공공부문이 55만개의 직접 고용창출(연간으로 환산시 28만개)
- ② 일자리 지키기·나누기 지원(잡 셰어링)을 통해 22만개 일자리의 고용유지·실업예방
- ③ 대졸 미취업자, 실직자 등 총 33만명을 대상으로 교육·훈련 프로그램 실시
- ④ 실업급여 등 실직자 생계지원 확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

< 일자리 대책 관련 추경사업별 규모 >

	직접적 일자리 창출	일자리 나누기	교육· 훈련	생계지원· 고용촉진	합계
추경예산(억원)	26,881	4,862	1,580	15,680	49,003
대상인원(만명)	55.2	22.1	32.7	38.2	148.2

◇ 대상별 일자리 창출 규모를 보면

- ① 대졸자 등 청년층 대상 6.8만개
 - ② 중장년층 대상 44.7만개
 - ③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3.6만개
- * 여성대상 일자리 14만개 수준
 - * 지방대상 일자리 30만개 수준을 창출하는 등 대상별, 계층별로 적합한 대책을 마련

◇ 55만개의 일자리 창출로 추경 집행이 본격화되는 금년 하반기에는 고용사정 개선에 기여할 전망

- * '09.2월 실적 : 취업자 △14만명, 실업자 92.4만명
 - * 일자리 창출 규모중 일부는 기존 취업자의 이동으로 상쇄되므로 취업자수 변동을 정확히 예측 곤란
- 이와 함께 추경예산에서 중소기업·수출기업 지원, R&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임
- * 수출·중소기업 지원, 미래대비 투자 등 간접 고용유발효과(4~7만개 내외) 고려시 금번 추경으로 60여만개의 새 일자리 창출 전망

1] 일자리 만들기 : 55만개의 새로운 고용 창출

◇ 경기 위축으로 민간의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, 정부·공공부문이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대폭 확대

- 정부·공공부문 직접고용 : 희망프로젝트(6개월간 40만개), 사회서비스 일자리(3.3만개) 등 추경예산사업이 시행되는 금년중 55만개 일자리 창출

※ 직접 일자리 사업 이외에 추경예산으로 유발되는 간접 고용유발 효과는 별도

-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임금의 70%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1.2만명 644억원 추가 증액
-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의 일부(30만원)를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11억원 신규 반영
-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40만명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2조원 신규 반영
- 사회적 일자리,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2,879억원을 증액함으로써 교육, 사회복지, 산림보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 3.3만개 추가 확대 (12.9만개 → 16.1만개)
- 이와 함께 학습보조 인턴교사(2.5만명, 478억원), 대졸 미취업자 조교 채용(7천명, 323억원), 노인 일자리 확충(16→19.5만명, 1,155→1,421억원)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

2] 일자리 지키기·나누기(잡 셰어링) : 재직근로자 22만명 실업예방

◇ 생산량 감소·매출 축소 등 어려운 기업 여건하에서도 감원 등 고용조정 대신, 휴업·조업단축 등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 및 근로자 부담분 중 일부를 지원

-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* 3,070억원 추가반영, 14.3만개 일자리 유지를 지원('09당초 6.5만개, 583억원 → 추경후 20.8만개, 3,653억원)

* 근로자 감원대신 휴업·훈련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경우, 임금의 일부를 지원 (1/2~2/3 → 2/3~3/4으로 상향조정)

-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휴업근로자 6만명에 대해 평균임금의 40%까지 지급하기 위해 992억원 증액

* 고용유지를 위해 노사합의로 휴업을 실시하고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 평균임금의 40%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의 40%와 실제 지급받은 휴업수당의 차액을 휴업근로자에게 지원

-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교대제를 실시할 경우 감소된 임금의 1/3을 정부가 지원(신규 1.7만명, 182억원)

*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 노사 합의로 교대제 전환시 지원하여 노사간 양보교섭을 지원

3] 교육 및 훈련

◇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, 미취업 대졸자 등 33만명에게 취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·훈련프로그램 개발·지원

- 대졸 미취업자 등 9.4만명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203억원을 신규 반영하여 학내 특별 교육프로그램(Stay-in-school program) 개설을 지원
- 청년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직업상담부터 훈련, 취업알선까지 연계하여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을 제공
- 건설 등 일용근로자 10만명에게 산업안전교육, 도면보기 교육 등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(신규 100억원)
- 구직능력 제고를 위해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을 확대(17→19만명)하고,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을 대기업 등 우수 민간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 증액(3만명, 210억원)

4] 실직자 생계지원 및 취업 촉진

◇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, 취업 애로계층, 중소기업 빈 일자리 등 구직·구인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취업 촉진 지원을 강화

- 실업급여 신청건수 증가추세를 감안, 실업급여(구직급여 및 연장급여) 예산을 대폭 확충 (2.9 → 4.5조원, 102 → 140만명)

-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, 여성가장, 장애인, 청년, 출산 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을 채용시 지급하는 신규채용장려금 지원 단가를 20% 인상 (월 15~60만원 → 18~72만원)
-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눈높이 조절을 통한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
 - * 빈 일자리 : 중소기업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인 등록하고 3회 이상 알선을 받았으나 채용에 실패한 일자리
 - * 지원금액(30만원) : 워크넷 구직자의 평균 희망임금(154만원)과 구인기업의 평균 제시임금(127만원)의 차액을 감안
- 고용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역(시·군·구 단위)으로 지정, 해당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또는 신·증설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1/2(대기업은 1/3)을 1년간 지급

<참고 1> 대상별 일자리 대책 규모

<참고 2> 주요사업 설명자료

기획재정부 대변인

1. 청년 일자리 : 직접고용 등 총 18.1만명(3,677억원)

□ 직접고용 : 6.8만명(3,052억원)

- 중소기업이 인턴 채용시 임금의 최대 70%까지 지원 (2.5 → 3.7만명, 985 → 1,629억원)
- 초·중·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(신규 2.5만명)
- 대학 조교채용 확대(7천명), 전파자원 실태조사 등 지방대 졸업자를 위한 일자리(7.5천명), 공공기관 인턴(4천명) 등

□ 취업 촉진 : 0.6만명(111억원)

-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의 일부 (월 30만원)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(6천명, 111억원)

□ 교육 및 훈련 : 10.7만명(514억원)

- 대졸 미취업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학내 교육프로그램 (Stay-in-school program) 신규 추진 (9.4만명, 203억원)
- 직업상담·훈련·취업알선을 연계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 확대
- *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(1→1.5만명, 84억원→176억원) 등

※ '09년 대학 졸업자수 전망 : 56만명 ('08년 실적 56만명)
 ▪ 취업자 전망 : 31~39만명 ('08년 실적 39만명)
 ⇨ '09 대졸자중 실업·비경활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17~25만명 ('08년 실적 17만명) 에 대해서는 총 18.1만명에 대한 청년 일자리 대책(직접고용 6.8만명, 취업 촉진 0.6만명, 교육 및 훈련 10.7만명)으로 대응

2. 여성 일자리 : 14만명 수준

□ 여성 특화 일자리 : 1.5만명

- 아이 돌보미 (8백명)
-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설계사 (3천명)
- 아동인지발달 지도사 지원 (3천명)
- 사회적 기업 채용지원 (10천명중 여성 8천명)

□ 일반 일자리 : 3.7만명(여성참여 비율 40% 수준 가정)

- 학습보조 인턴교사 (25천명중 40%)
- 미취업 대졸 조교 채용 (7천명중 40%)
- 지자체 청년인턴제 (4천명중 40%)
- 자활 근로사업(10천명중 40%), 노인적합 일자리(3.5만명중 40%) 등

□ 기타 일자리 : 8.5만명(여성참여비율 20% 수준 가정)

- 희망근로 프로젝트 (40만명중 20%)
-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(1.2만명중 20%) 등
- * 숲가꾸기(0.8만명) 등 남성 위주 일자리 약 2만여개는 대상에서 제외

3. 지방 일자리 : 30만명 수준

□ 지방 위주 일자리 : 약 6만명

- 학습보조 인턴교사(25천명), 숲 가꾸기 등 산림보호 일자리 (13천명), 자활근로(10천명), 등은 사업의 지역 분포를 감안, 지방에서 70% 이상 고용 가정

□ 일반 일자리 : 약 24만명

- 희망근로 프로젝트(40만명), 사회적 일자리(1만명) 등은 전국 인구 분포에 따라 지방 거주자 참여 비중을 50% 수준 가정
- * 2005 인구총조사(통계청) : 비수도권 인구비중 52%

참고 2 **주요사업 설명자료**

고용유지지원금(계속)

목 적

- 기업들의 일자리 지키기 노력을 차질없이 지원

지원대상

- 매출액·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(휴업, 훈련 등)를 실시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
-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 소속 재직근로자 21만명 실업예방
- * 최근 경기침체로 '08.11월부터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건수 급증

'08.10	11	12	'09.1	2.26
469건	1,329건	7,472건	3,874건	4,213건

지급액

-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 및 수당의 2/3~3/4을 6개월간 지원

재원소요 : '08년 583억원 → 3,070억원 추가

무급휴업 근로자 지원(신규)

목 적

- 고용유지가 급선무인 위기상황에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로 고용을 유지하는 워크 셰어링을 촉진하기 위함

지원대상

- (휴업근로자 지원 수당) 노동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평균임금의 40%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(61천명)
- (휴업근로자 훈련) 노동위원회 승인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무급 휴업을 실시하고 그 기간에 훈련하는 경우 훈련비지원(24천명)

지급액

- 휴업근로자 지원 수당
 - 평균임금의 40%*에 해당하는 금액과 휴업근로자가 실제 지급 받은 휴업수당의 차액
- 휴업근로자 훈련
 - 「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」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훈련시간 및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20% 범위 내에서 지급

재원소요 : 992억원

교대제전환 지원(신규)

□ 개 요

-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에 의하여 교대제로 전환하는 경우, 교대제전환(근로시간 단축)으로 감소되는 임금의 1/3*을 6개월간 사업주에게 지원
 - * 나머지 2/3는 노사간 합의로 분담

□ 지원대상

- 교대제 전환을 통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1.7만명의 실업예방

< 교대제 전환 예시 >

원 행	전 환
근로자 60명 → 2교대 운영 · A조 : 30명, 12시간 근무 · B조 : 30명, 12시간 근무	근로자 60명 → 3교대 운영 · A조 : 20명, 8시간 근무 · B조 : 20명, 8시간 근무 · C조 : 20명, 8시간 근무
시간당 임금이 1원인 경우 · 1인당 1일 임금 : 12원 · 사업주 1일 임금부담 : 720원	시간당 임금이 1원인 경우 · 1인당 1일 임금 : 8원 · 사업주 1일 임금부담 : 480원 → 생산량 및 임금 30% 감소
- 임금이 240원(1인당 4원) 감소 → 국가가 1/3(80원)부담하되, 나머지 160원은 노사간 합의를 통해 부담	

□ 지급액

- 교대제전환(근로시간 단축)으로 감소되는 임금의 1/3*을 6개월간 지원

□ 재원소요 : 182억원

중소기업 청년인턴제(계속)

□ 사업 개요

-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간 임금의 50%(취약청년층은 임금의 70%) 지원(일반회계)
 - * 정규직 채용시 동일 금액을 6개월 추가지원(고용보험기금에서 별도 지원)

□ 추경 반영내용(12천명)

- '09년 추가예산 : 644억원(지원인원 12천명)
- '09년 사업물량 확대 지원(25천명 → 37천명)
 - 일반연수수당(2천명) : 60만원, 6개월 지원
 - 취약청년연수수당(10천명) : 84만원, 6개월 지원
 - * 취약청년 : 장기구직청년(6개월 이상), 고졸이하 비진학자, 전문고계 졸업자, 위기청소년 등

□ 지원대상 및 효과

- 인턴과정을 통해 청년의 경력형성 및 직업능력 배양으로 청년의 취업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

공공기관(지자체) 인턴제(계속)

□ 사업 개요

- 선발대상 : 대학졸업자
- 채용인원 : 지자체 정원의 2% 규모, 5,640명
- 근무조건 : 12개월 미만(평균 10개월), 월 100만원 수준
- 소요예산 : 190백만원

□ 추경 반영내용

- '09년 추가예산 : 183억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- 채용인원 : 3,971명(민생안전 지원요원 2,240명, 영세업소 식품 안전 도우미 등 1,000명, 문야·예술분야 731명)

□ 지원효과

- 대졸 취업준비생에게 공공부문 체험기회를 제공, 직무역량 제고 및 경력형성 도모

빈 일자리 취업장려수당(신규)

□ 목 적

-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에도 불구하고, 중소기업업을 중심으로 구인난 - 눈높이 조절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, 기업의 구인난 및 취업난을 동시에 해소

□ 지원대상 : 6천명

- 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* 참여자 및 청·장년 구직자
*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,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자 우선 지원

□ 지급액 : 월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

- 구직자 희망임금과 구인기업 제시임금의 차액의 일부(30만원) 보전

□ 대상기업

- 기업의 구인의사에도 불구하고,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없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

□ 재원소요 : 111억원

건설 등 일용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(신규)

□ 목 적

- 적극적인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일거리를 잡지 못하는 일용 근로자를 「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」으로 유인하여 취업능력향상을 도모

□ 지원대상 : 10만명

- 비정규직 건설근로자

□ 지급액

-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는 프로그램에 따라 1인당 교육비 지원
※ 교육비 : 산업안전교육 3만원(1일), 도면보기교육 10만원(5일), 기능훈련 50만원(20일)
- 훈련생에 대하여는 식대·교통비 1일 15천원 지급

□ 대상사업

- 산업안전 교육 : 인력시장 등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일용 근로자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 관련 교육 실시
- 도면보기 교육 : 구조물 설계 및 시공과정 전반 이해 교육
- 기능훈련 : 조적, 미장, 도배, 도장, 타일, 용접 등 건설일용근로자가 주로 종사는 직종에 대한 훈련 실시

□ 재원소요 : 100억원

지역고용촉진지원금(신규)

□ 목 적

- 노동부장관이 『고용개발촉진지역』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·신·증설시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지원하여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

□ 지원대상 : 620명

- 『고용개발촉진지역』으로 이전 및 신·증설을 하는 사업체에 고용된 고용보험 피보험자

□ 시행기간 : 필요시(지정 후 1년간 지원)

□ 지급액 :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/2(대규모기업 1/3)

□ 대상사업

-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『고용개발촉진지역』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, 신설, 증설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지원

□ 재원소요 : 30억원

전파자원 실태조사(신규)

□ 목 적

- 경기침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공계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 및 사회진출에 필요한 전파기술 역량 습득기회 제공

- 조사결과는 DB로 구축, 향후 유희 주파수 회수 및 신규허가시 활용

□ 지원대상 : 900명

- 이공계 대학 졸업생(졸업예정자 포함) 및 미취업 기술인력

□ 시행기간 : '09. 8월 ~ '09. 11월 (4개월간)

□ 지급액 : 인턴 110만원/월, 기술인력 233만원/월

- 급여는 매월 현금지급(일할계산 개인계좌 입금)
- 식비 및 교통비 별도지급 20,000원/1일

□ 대상사업

- 7대 도시에 산재해 있는 고정형 무선국 실태조사
- 6대 광역시 전파이용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전파잡음 측정
- 6대 광역시의 동별 특정지점을 샘플링하여 전자파 노출량 측정

□ 재원소요 : 108억원

유급지원병 충원 확대(계속)

□ 목 적

- 청년실업 해소 및 전투/기술 숙련병을 조기에 충원하여 군 전투력을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

□ 충원 확대인원 : 1,200명

- '09년도 당초 충원 계획인원 1,300명외에 1,200명을 추가충원 (총인원 2,500명)

□ 충원기간 : '09. 5월 ~ 12월 (8개월간)

□ 지급액(보수) : 120만원 / 월

- 병 복무 만료 후 6~18개월 연장 복무(계급 : 하사)

□ 활용분야

- 전투/기술 숙련기간이 필요한 분대장, 정비병 등 1,200개 직위

□ 재원소요 : 58억원

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(신규)

□ 사업 개요

- 초·중·고교에 학습보조 인력지원을 위해 인턴교사 채용

□ 사업 시행주체

- 시·도 교육청(국고보조 50%)

□ 추정 반영내용 : 478억원 신규 반영

- 기초 학력 미달자 학습보조, 예체능 분야 인턴교사 채용 등
- (교과분야) 370억원 (15,438명, 1인당 120만원)
 - 학력미달학교 1,808개교 4.8천명
 - 과학실습보조 3천명
 - 실업고교 697개교 2.9천명
- (예체능 분야 방과후 학교) 108억원 (10천명, 1인당 54만원)
 - 실습보조 예체능분야 10천개교 10천명

□ 지원대상 및 효과

- 대졸 미취업자 등에게 일자리 제공(25천명)
- 학력증진 및 사교육비 절감

Stay-in-school program (신규)

□ 개 요

- 미취업 대졸생을 대학내 조교 등으로 채용하거나 특별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취업교육 지원

□ 지원내용

- 대학내 조교 채용
 - 지원규모 : 350개교에 20명씩 총 7천명 지원
 - 지원단가 : 1인당 110만원(6개월)
 - 지원액 : 323억원(국비 50%)

○ 특별프로그램

- 지원규모 : 100개교
- 지원단가 : 학교당 평균 3억원
- 지원액 : 150억원

○ 평생학습프로그램

- 지원규모 : 20개교
- 지원단가 : 학교당 평균 3억원
- 지원액 : 53억원

- 지원효과 : 미취업 대졸자에 대한 학교내 채용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

사회서비스 일자리 (계속)

□ 사업 개요

- 각 부처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을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분류·관리

* 사회서비스의 정의 (사회적기업 육성법 §2조3호, 시행령 §3조)
: 교육, 보건, 사회복지, 환경 및 문화, 보육, 예술·관광 및 운동, 산림 보전 및 관리, 간병 및 가사 지원 등

□ 추경 반영내용

- 12.9만명(12,366억원) → 16.1만명(15,245억원)으로
3.3만명(2,879억원) 증가

	(명)		
구분	'09당초(A)	'09추경(B)	증감(B-A)
합계	128,738	161,403	32,665
· 사회적 일자리 (노동부)	15,573	25,673	10,000
· 숲가꾸기 (산림청)	20,650	28,346	7,726
· 산림서비스 증진 (산림청)	5,590	7,402	1,812
· 국립공원 숲가꾸기 (환경부)	-	3,208	3,208
· 공공도서관 시간연장 (문화부)	567	967	400
· 생활체육 지도자 (문화부)	2,550	3,200	650
· 궁능유적 주요전각경비 (문화재청)	-	162	162
· 아이돌보미 (복지부)	4,973	5,780	807
·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도우미 (복지부)	2,000	2,500	500
· 지역사회 청년벤처 (복지부)	-	6,600	6,600
· 아동청소년발달지원 (복지부)	9,356	-	9,356
·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(복지부)	470	1,270	800

문화예술기관 인턴제도 활성화 (계속)

□ 목 적

- 경기침체로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전공자를 대상으로 공연기획, 공연출연 등 현장경험과 실무능력 배양

□ 지원대상 : 국립극장, 국립국악원 등 국공립예술단체

- 성악, 무용(발레 등), 국악, 예술경영 등 예술분야 전공(전문) 예술인

□ 시행기간 : '09. 1월 ~ '09. 12월(1년)

□ 지급액

- 기본급여 : 월 1백만원
- 기타 수당으로 공연 시 출연에 따라 1회당 5만원의 공연수당을 지급하고 예술경영 및 공연기획 단원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

□ 대상사업

- 국립예술단체·전문예술법인·단체*에 연수단원 및 인턴을 배치, 국립예술단체 및 전문예술법인·단체 등을 활성화하고 예술분야 졸업자에게 현장경험 및 사회진출 기회 제공

* 국립극장(극단, 창극단, 무용단, 국악관현악단), 국립국악원, 국립오페라단, 국립발레단, 국립합창단, 서울예술단, 전국문예회관연합회

□ 재원소요 : 13억원('09당초 18억원 → 추가 31억원)

- 126명×8개월×1백만원

노인일자리 확충 (계속)

□ 사업 개요

-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
 - 공공분야 : 아동안전보호, 문화재해설 및 보호 등
 - 민간분야 : 주유원, 가스충전원, 카드배송원 등
- 보조율 : 지자체 보조(서울 30%, 지방 50%)

□ 추정 반영내용

- '09년 추가예산 : 277억원
-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노인 일자리 3.5만개 추가 창출
 - * 35,000명(공공분야) × 153만원(7개월) × 50%(국비) = 26,775백만원
 - 전담교육인력(120명당 1인) : 300명 × 7개월 × 90만원 × 50% = 945백만원

□ 지원대상 및 효과

- 공공분야 노인적합형 일자리 3.5만개 창출

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(계속)

□ 목 적

- 공공도서관 야간 개방으로 지역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기회 확대 및 야간시간 운영인력을 채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

□ 지원대상 : 200개 공공도서관(820여명 근로자 채용)

-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도서관 : 200개관('09당초 120개 / 추가 80개)
- 야간시간 운영인력 : 820명('09당초 : 420명 / 추가 : 400명)
 - * 문헌정보학과 전공자 및 사서자격증 소지자(관련학과 및 유사자격증 소지자 가능)

□ 대상사업

- 자료실 22시, 열람실 22시(이후 자율개방)까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지방자치단체(시·도) 선정 지원

□ 국비보조율 : 국비 50%, 지방비 50%

□ 재원소요 :50억원 (국비 25억원, 지방비 25억원)

- 400명 × 8개월 × 1,030천원